

차기 KB국민은행장 이번주 확정... 허인 現행장 연임 유력

이번주 대추위 열고 후보 추천
코로나 영향 변화보단 안정 예상
수익성·리스크 관리 성과 이뤘

차기 KB국민은행장 최종 후보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허인 現행장의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단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3년간 경영성과가 탄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빠르면 이번 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허 행장의 임기는 다음달 20일까지다. 임기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주 중으로 차기 행장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추위는 KB금융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지주 사외이사 3인과 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해관계자인 허 행장은 대추위서 빠지고 4



허인 KB국민은행장.

명이 논의해 결론을 내게 된다.

대추위가 최종 후보를 확정하면 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어 자격검증 등 심사를 진행한다. 행추위는 국민은행 사외이사 5인이다.

윤 회장은 3연임이 결정된 이후 '계열사 CEO 인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열사 경쟁력과 그룹 전체의 시너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허 행장의 재연임이다.

허 행장은 지난 2017년 11월 은행장으로 선임됐고, 지난해 한 번 연임에 성공했다. 당초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임기로 여겨졌던 '2+1년'을 다 채우면서 카드나 증권 등 KB금융의 다른 계열사 CEO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교체보다는 재연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먼저 허 행장은 수익성은 물론 리스

크 관리에 있어서도 성과를 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펀드까지 금융권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국민은행은 피해갔다.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허 행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융 패러

다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해 왔다. 뱅킹앱 고도화를 비롯해 KB모바일인증서 출시, 디지털 창구 전환, 손으로 출금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 캄보디아 소매대출기관인 프라삭 인수에 이어 올해 4월에는 미얀마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올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추가 지분 인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얀마-캄보디아-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금융벨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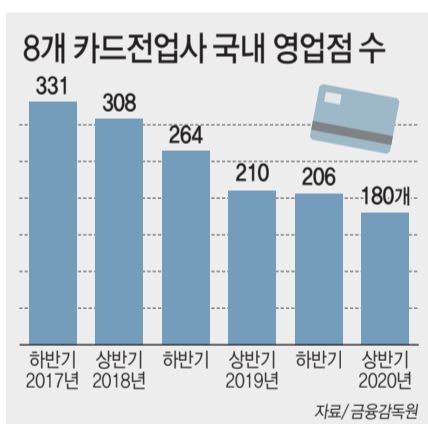
은행 내부적으로도 허 행장의 재연임에 대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서도 특별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그룹 내에서 은행장은 차기 회장 자리로 인식되는 만큼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장이 교체될 경우 그룹내 권력이 신임 행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사 영업점 2년새 '뚝'... 200곳도 안돼 청소년 전용 '카카오뱅크 미니'로 10대 공략

8개 카드사 영업점포 전년비 14% ↓
현대카드 영업점 전년비 22곳 줄어



▲2018년 상반기 308개 ▲2018년 하반기 264개 ▲2019년 상반기 210개 ▲2019년 하반기 206개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말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점포수가 200개선을 유지했지만 올 상반기 들어 이마저도 무너진 것이다.

/이영석 기자 ysl@

특히 현대카드의 영업점 축소가 두드러졌다. 현대카드의 올 상반기 전국 영업점 수는 총 31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개(41.51%) 줄었다. 2년 전인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89개의 영업점을 유지했으나 2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기간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도 각각 8개(50%), 3개(8.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업점 축소배경으로 비대면·온라인 영업의 확대가 꼽힌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온라인 발급 비중이 확장하면서 온라인 영업 비중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올 초부터 국내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워지자 비대면 영업 확산세가 더욱 가속화한 것이다.

1일 이용 한도 30만원
모든 ATM 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 공략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사진)'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개설하는 '미니'는 입금과 이체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간편이체 과정에서 만나는 메시지 카드는 '미니'만의 감성 답아 귀엽고 재치 있는 문

구와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미니'는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 '미니'를 개설하면 5종의 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니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미니'가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카드 韓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A+'

카드업계 최초

KB국민카드가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카드업계 최초로 지배구조 부문 'A+'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A' 등급을 받으며,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카드업계에서 유일하게 'A+' 등급을 획득했다.

KB국민카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워크숍을 통

해 회사 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외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 활성화와 이해도 제고에 힘 쓰는 등 이사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KB금융지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B금융그룹의 체계적인 지배구조 정책과 전략이 이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점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영석 기자 ysl@

IBK기업은행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IBK기업은행이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인 'IBK 퍼스트 클래스(First Class)'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무, 부동산, 금융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은 물론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분석해 최상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은행 측은 전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상담도 진행한다.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GS25와 적금 이벤트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서 응모

SC제일은행이 'GS25와 함께하는 적금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다. 퍼스트가계적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기본금리는 연 1.0%, 매월 불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GS리테일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응모하고, 퍼스트가계적금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선착순 350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SC제일은행 마케팅 정보제공 동의를 유지하면 오는



11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 12월 GS Fresh Mall 할인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2021년 3월에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을 지급해 모두 2만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및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신규 고객이 이번 제휴 이벤트를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상품권(각 25만원)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